

보도 일시	2022. 1. 27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2. 1. 27.(목) 09:00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 박승범 (044-203-2511)
		담당자	서기관 이하늘 (044-203-2512)

설 연휴,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집콕 문화생활 즐기세요

- 1. 28.~2. 6. 비대면 콘텐츠 통합안내 누리집 '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' 운영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한국문화정보원(원장 홍희경)과 함께 1월 28일(금)부터 2월 6일(일)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국공립 문화·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·전시·행사 등을 통합 안내·제공하는 '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'을 운영한다.

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국립·공공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'집콕 문화생활(<http://www.culture.go.kr/home>)' 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, 명절과 연말 연시 등을 계기로 특별전을 운영해 왔다.

'박수근 작품' 전시해설, 실감콘텐츠 '광화풍류', 국립극단 신작 공연 등 선보여

문체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문화·예술·체육·관광 콘텐츠를 소개한다.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▲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전시해설 '집에서 만나는 박수근', ▲ 광화문의 역사·현재·미래를 주제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 실감콘텐츠로 구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'광화풍류', ▲ 경복궁 발굴·복원 30주년을 기념한 문화재청 특별전 '고궁연화', ▲ 국립극단 신작 공연 '만선', ▲ 국보 반가사유상 '사유의 방' 등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·특별전 전시해설, ▲ 한국문화정보원의 '200초로 즐기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' 시리즈 등 다양한 전시·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.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지 추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'집에서 즐기는 운동(홈트)!'도 만나볼 수 있다.

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“코로나19 변이로 인해 실외에서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들이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문화·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앞으로 비대면 문화·예술 활동이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

- 따로 붙임 1. ‘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’ 홍보 이미지
2. ‘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’ 콘텐츠 목록

